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결성된 8인조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가 데뷔를 앞두고 앨범 준비에 돌입했다. 멤버인 가수 박재정, 방송인 지석진, 래퍼 원슈타인, 가수 KCM(원쪽부터)이 무대에서 노래를 열창하고 있다.

MSG워너비, 짹짹·환불원정대 넘겼는데?

나얼·박근태 등 데뷔곡 후보 경연 유닛 활동도 가능해 레퍼토리 다채 "음원차트 상위권 질주 가능성 크다"

'짹짹'과 '환불원정대'를 넘어서라! MBC '놀면 뭐하니?'가 배출한 프로젝트 그룹 짹짹과 환불원정대는 각각 지난해 신나는 댄스곡과 '걸크러시'의 진면목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음원시장은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이들에 이어 또 다른 프로젝트 그룹이 데뷔 초 입지에 들어갔다. 가수 김정민·썸디·연기자 이동휘·이상 등 8명의 멤버로 구성된 MSG워너비이다. 이들은 과연 짹짹과 환불원정대의 성과를 넘어서는 파

급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달 데뷔... 인기 창작자들까지 참여 '놀면 뭐하니?'는 3월 말부터 제작자 유아호(유재석)가 이끄는 MSG워너비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경연을 거쳐 최종 8명의 멤버를 확정된 뒤 이달 데뷔곡을 내놓을 전망이다.

MSG워너비는 2000년대 남성 보컬그룹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경연 과정에 출연한 SG워너비가 '라라라'와 '내사랑' 등 과거 인기곡으로 다시 음원 차트에 진입해 '역주행' 흥행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여기에 최근 SG워너비와 호흡을 맞춘 로코베리와 대표적 보컬그룹 브라온아이즈소울의 나얼·영준, 인기 작곡가 박근태와 김도훈 등이 데뷔곡 후보 경연을 펼치면서 짹짹과 환불원정대

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이 벌써 커지고 있다. 특히 MSG워너비의 멤버수가 8명이라는 점에 비춰 일부 멤버들을 따로 떼어내는 '유닛' 활동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이 같은 기대감을 키운다. 그만큼 이들이 선보일 레퍼토리가 다채로울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채로운 신규 음원으로 가온차트 김진우 수석연구원은 MSG워너비의 가능성을 음원 소비 추이에 근거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김수석연구원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신규 음원과 이용량의 감소 속에서 MSG워너비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짹짹이 지난해 '여름

안에서' 등으로 인기를 모은 데에는 "최근 4년간 6~8월 여름 시즌 차트 100위권에 랭크된 댄스장르의 음원 감소" 및 "2018년 이후 4년 동안 100위권 음원 가운데 신곡 수 역시 체감적으로 급감"한 요인이 작용했다. 실제로 "최근 음원시장에 역주행 곡들이 대거 진입해 통렬하는 것의 근본적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여기에 '놀면 뭐하니?'의 방송 영향력을 감안하고, 8명이라는 멤버 수에 근거한 전체 팀 및 각 유닛 활동까지 포함해 다수의 신규 음원을 내놓는다면 음원차트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이들의 경연 과정에서 다시 불린 노래들의 차트 역주행도 이를 반영한다고 김 수석연구원은 설명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 17일 베일 벗는다

모교에 부임한 교감과 학생들의 이야기 김서형 "피칠갑 촬영장 무서워 숨기도"

새로운 '호러 퀸'이 탄생할까. 한국 공포영화의 대명사 '여고괴담'의 여섯 번째 이야기 '모교'가 17일 개봉을 앞두고 9일 베일에 싸인 이야기를 공개한 가운데 주역들의 활약상이 시선을 끈다. 12년 만에 나온 '여고괴담' 시리즈의 신작에 대한 관객 호기심이 작지 않아 이를 밑거름 삼은 연기자들의 향후 행보도 관심을 모은다. 김서형을 비롯해 김현수·최리·김형서 등이 주인공들이다.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모교'(모교)는 과거의 기억을 잃은 채 모교에 부임한

교감과 학생들이 학교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다. 지난 시간 속에 숨겨진 상처와 현재에 이르러서도 이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 커다란 사회적 메시지의 무대를 펼쳐 놓는다. 교감 역 김서형은 "피칠갑이 된 촬영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무서워 숨기도 했다. 사실 공포영화를 잘 못 본다"면서도 "공포퀸은 되고 싶다. 죄송하다"는 너스레로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근 tvN 드라마 '마인'을 통해 시청자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그는 사실 2005년 '여고괴담4:목소리'에서도 교사 역을 연기했다. 하지만 시리즈의 각 작품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또 다른 캐릭터로 나섰다. 연출자 이미영 감독은 "각 시리즈는 연관성

이 없이 고유의 이야기를 담았다. 4편의 김서형 캐릭터가 너무 빨리 사라져 아쉬웠다. 이번 이야기로 다시 살리고 싶었다"고 캐스팅 배경을 설명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로 낮은 김현수를 비롯해 최리와 김형서는 10대들의 아픔과 현실적 공포를 표현했다. '여고괴담' 시리즈의 명성과 이에 대한 관객 기대감에 부응하려는 듯 김현수는 "인기도 많고 역사도 깊은 시리즈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최리와 김형서 역시 "추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시리즈였다"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여고괴담'이라는 무대는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윤여수 기자



김서형, 김현수(왼쪽부터)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여고괴담 여섯 번째 이야기: 모교'의 언론사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kth

'옛날 드라마'의 역주행

태조 왕건·전원일기 등 다시보기 열풍 '아인 이즈 백' 등 예능 콘텐츠로도 인기

'옛날드라마'가 뜬다. KBS 1TV '태조 왕건'을 비롯해 MBC '전원일기', SBS '아인시대' 등 1980~2000년대 드라마들이 '다시보기 정주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유튜브와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드라마전문 케이블채널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중장년층뿐 아니라 1020세대 시청자까지 사로잡았다. 2002년 방영해 50%대(닐슨코리아) 시청률을 기록한 '아인시대'는 온라인에서

당시 인기를 재현하고 있다. 김영철의 "사 팔라", 김영인의 "내가 고자라니" 등 극중 명대사가 '밈'(인터넷상 유행 콘텐츠)현상으로써까지 번진 덕분이다. 최근 이를 패러디한 예능 콘텐츠까지 나왔다. 주인공 김두한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안재모가 '아인시대' 속 캐릭터로 등장하는 카카오톡 '아인 이즈 백'이다. 개인 SNS를 통해 드라마를 향한 남다른 사랑을 드러낸 개그맨 이진호와 래퍼 사이먼도마니 등도 자칭해서 출연했다.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한 '전원일

기'는 MBC ON 등으로 꾸준히 시청자를 만나고 있다. OTT 웹드라마에서는 5월 마지막 주(24일~30일) 인기 드라마 차트 10위에까지 올랐다. 최근에는 22년간 총 1088회의 국내 최장수 드라마 방영 기록과 함께 촬영 뒷이야기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기자 정태섭이 출연 도중 2001년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가 연기한 이노인도 극중 사망한 것으로 설정해 장례식 장면을 삽입했다는 사례 등이다. 지상파 방송사도 각 유튜브 계정으로 인기에 '화력'을 더한다. SBS는 '백드-스브스 옛날 드라마'로 '여인천하' 등을 10분가량 영상으로 재가공해 공개하고 있다. KBS와 MBC도 각각 '옛날터비-KBS 아카이브'와 '옛드:옛날 드라마'를 운영 중이다.

온라인에서 '짹'(짧은 동영상이나 사진)로 자주 등장하는 MBC '제5공화국'과 '허준', KBS 1TV '용의 눈물' 등 드라마의 명장면을 모았다. 각각 20여만 구독자를 모은 계정의 영상은 많게는 50만 조회수를 넘기며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9일 "'아인시대'가 컴퓨터그래픽이나 특수 촬영 없이 선보인 정통 액션, '전원일기'의 자극 없는 일상적인 풍경 등 지금은 찾을 수 없는 볼거리가 시청자의 호기심을 새롭게 잡아준 결과"로 분석했다. 그는 "아날로그문화에 대한 대중적 동경이 복고 열풍과 맞물리면서 더욱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첫 솔로 앨범 낸 이상순

11년 만에 미니앨범 '이상순' 발표 타이틀곡 '너와 나의' 등 잔잔한 매력



이상순

기타리스트로도 활동 중인 이상순이 11년 만에 본업인 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솔로 EP(미니앨범) '이상순'(Leesangsoon)을 발표한 데 이어 잇달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팬들과 만나고 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자신의 이름을 달고 내놓는 첫 솔로 앨범이라는 점에서 가요계는 물론 방송가에서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9일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상순은 올해 데뷔 24주년을 맞아 자신의 음악을 팬들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바람으로 솔로 앨범을 내놓았다. 1999년부터 밴드 롤러코스트의 멤버로 활동하다 2010년 김동률과 함께 한 베란다 프로젝트 '데이 오프'(Day off) 이후 11년 만이다. 또 2013년 가수 이효리와 결혼한 이후 DJ로 활동하며 간간히 취미처럼 음악 활동을 이어왔지만, 본격적으로 가수로서 무대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이상순은 이번 앨범에 타이틀곡 '너와 나의'를 비롯해 솔로 앨범의 잔잔한 노래 4곡에 보너스 트랙 1곡을 추가해 담았다. 그가 오랜 공백을 끝내면서 작사가 박창학이 공동프로듀서로 나섰다. 선우정아도 수록곡을 함께 부르며 작사에 참여해 힘을 실어줬다. 소속사 측은 "가수이자 한때 라디오 진행자로서 활동하며 남다른 애정을 보여 온 남미 팝음악의 매력을 토대로 이상순만의 해석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순은 앨범 발표를 계기로 팬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최근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비롯해 이달 중순 방송을 시작하는 JTBC 음악경연 프로그램 '슈퍼밴드2'에 프로듀서로 합류한다. 또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이상순 사진전'을 열고 음악과 여행에 대한 시선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유진-김영대, 결식·학대피해 아동 지원



유진

연기자 유진과 김영대가 각각 결식아동 및 학대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에 나섰다. 유진은 전속모델로 활동하는 햄버거 브랜드와 결식아동에게 한 끼를 선물하는 '하버 버거 1+1 챌린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수익금은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결식아동에게 전달된다. 김영대도 그룹홈 아동 지원을 위해 굿네이버스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가수 겸 연기자 헤리도 5000만원을 기부했다. 기금은 여자 어린이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위시(we=sh) 캠페인'에 전액 쓰인다.

콜드플레이, 국내 현대무용단과 협업



콜드플레이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국내 현대무용단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협업한 신곡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콜드플레이는 9일(한국시간) 공식 유튜브에 지난달 발표한 새 싱글 '하이어 파워'(Higher Power)의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다. 페허가 된 도시를 배경으로 그래픽 효과 등을 이용해 짙은 SF영화처럼 표현했다. 미국 그래미 어워드 등을 수상한 데이브 마이애스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백지영·거미 등 13일 '평화음악회' 출연

가수 백지영, 거미, SG워너비 등이 13일 오후 5시40분부터 80분간 생방송하는 KBS 1TV '2021 평화음악회-마음, 잇다'(평화음악회)에 출연한다. 이들은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평화음악회'에서 무대를 선보인다. KBS는 "공연을 통해 분단국가의 아픔과 상처, 그리움을 깊은 감성으로 전달하고, 평화와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연은 무관객으로 진행된다.